

기술분석보고서 건강관리

DXVX(180400)

- 요약
- 기업현황
- 시장동향
- 기술분석
- 재무분석
- 주요 변동사항 및 전망

작성기관 서울평가정보(주) 작성자 김명선 책임

 YouTube 요약 영상 보러가기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이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의 요약영상은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며, 영상편집 일정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미공개 상태일 수 있습니다.
-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작성기관(TEL.02-3449-155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DXVX(180400)

경구용 비만치료제와 핵산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기업정보(2026.07.14 기준)

대표자	권규찬, 유건상 각자대표
설립일자	2001년 06월 16일
상장일자	2015년 11월 20일
기업규모	중소기업
업종분류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주요제품	신약, 헬스케어, 의료진단

시세정보(2026.07.14 기준)

현재가(원)	2,200
액면가(원)	500
시가총액(억 원)	2,165
발행주식수	98,429,432
52주 최고가(원)	5,360
52주 최저가(원)	1,319
외국인지분율	5.02%
주요주주	임종윤 외 6인

■ 신약개발 중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

DXVX(이하 '동사')는 2001년 06월 설립되어 2015년 11월 기술성장기업 특례를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다. 동사는 의료진단 사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현재는 신약개발을 핵심 성장축으로 사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GLP-1RA),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KRNA™), 면역치료제(OVM-200)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헬스케어 및 의료진단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연계된 사업체계와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신약개발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 핵심 플랫폼 기반 연구개발 경쟁력 확보

동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와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면역치료제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AI 기반 유전체 분석 플랫폼과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을 활용하여 바이오마커 발굴과 정밀의료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신약개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글로벌 사업화 기반의 중장기 성장동력 확대

동사는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의 임상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임상 진입과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면역치료제의 후속 임상과 글로벌 사업개발을 병행하며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 및 바이오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요약 투자지표 (K-IFRS 연결 기준)

	매출액 (억 원)	증감 (%)	영업이익 (억 원)	이익률 (%)	순이익 (억 원)	이익률 (%)	ROE (%)	ROA (%)	부채비율 (%)	EPS (원)	BPS (원)	PER (배)	PBR (배)
2023	412.4	28.1	-154.5	-37.5	-278.4	-67.5	-99.7	-30.0	247.0	-929	701	N/A	7.3
2024	339.5	-17.7	-216.0	-63.6	-514.8	-151.7	-267.7	-59.8	342.4	-1,309	284	N/A	6.6
2025	293.6	-13.5	-243.2	-82.8	-295.8	-100.8	-53.8	-26.0	61.7	-587	954	N/A	3.3

기업경쟁력

신약개발 중심 사업체계	-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의료진단·헬스케어 연계 사업 운영 -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통합 사업기반 구축
핵심 파이프라인 경쟁력	- 경구용 비만치료제·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면역치료제 연구개발 추진 - 사업 간 시너지 창출을 통한 성장기반 확보를 추진 중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	- 자체 연구개발과 정부 과제 수행 - 글로벌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기반 확보

핵심 기술 및 적용제품

경구용 비만치료제(GLP-1RA)	- AI 기반 저분자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 - 대사질환 치료 파이프라인 확대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KRNA™)	- 핵산 기반 치료제·백신 적용 플랫폼 -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추진	
면역치료제(OVM-200)	- 재조합 중첩 펩타이드 기반 면역치료제 개발 - 글로벌 임상 및 사업화 추진	
의료진단·헬스케어 사업	- 의료진단 서비스 및 체외진단 사업 운영 - 건강기능식품·의약품 제조·유통	

시장경쟁력

비만치료제 시장 성장 대응	- 경구용 비만치료제 시장 확대 대응 - 핵심 파이프라인 중심 성장전략 추진
플랫폼 기술 사업화	-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기반 기술사업화 추진 -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
통합 바이오헬스케어 경쟁력	- 의료진단·헬스케어 기반 사업 다변화 추구 - 신약개발 중심 성장동력 강화

VRIO 분석 (VRIO Analysis)

VRIO(브리오) 분석이란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과 활용 능력을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 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는 도구.

가치(Value)	희소성(Rarity)	모방가능성(Imitability)	조직(Organization)
- 경구용 비만치료제·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면역치료제 핵심 파이프라인 확보 - 신약개발·헬스케어·의료진단 연계 사업체계 구축 - 글로벌 기술협력 기반 사업화 추진	-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 확보 - 글로벌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연계 사업기반	- 핵심 플랫폼 기반 연구개발 역량 축적 - 글로벌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경험 - 연구개발 및 지식재산권 기반 경쟁력	- 핵심 파이프라인 중심 연구개발 추진 - 정부 연구개발 과제 및 글로벌 협력 확대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확보

I. 기업 현황

의료진단 기반의 통합 바이오헬스케어 사업구조 구축

동사는 2001년 유전체 및 체외진단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의료진단 사업을 영위하며 성장하였고, 현재는 신약개발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면역치료제를 중심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의료진단 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자체 제조·유통 인프라와 주요 종속기업을 기반으로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연계된 통합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술협력과 기술이전을 통해 신약개발 경쟁력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 기업개요

동사는 2001년 6월 주식회사 엠지메드라는 사명으로 설립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다. 설립 초기에는 유전체 검사와 체외진단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기반을 구축하였고, 2015년 기술성장기업 특례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다. 이후 2017년 캔서롭, 2021년 현재의 디엑스앤브이엑스(Dx&Vx)로 사명을 변경하며 사업구조를 재편하였다. 이어 2022년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한국바이오팜 인수, 2023년 중국 현지법인 설립 및 신약개발 기업 에빅스젠 인수를 통해 신약 연구개발 역량과 사업기반을 확대하였다. 현재는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헬스케어와 의료진단 사업을 함께 운영하며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연계된 통합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 1] 동사의 연혁

연도	주요내용
2001.06	주식회사 엠지메드 설립
2006.01	STD 진단용 PCR kit 및 HPV genotyping kit 개발
2006.12	연골무형성증(왜소증) 진단용 PCR kit 개발
2007.01	취약 X 증후군 진단용 MSP kit 개발
2007.03	국내 최초 산전 유전체 검사서비스 시작
2009.07	보령제약그룹 업무제휴, G-스캐닝 서비스 시작
2011.11	국내 최초 수정란 유전체 검사 kit 개발
2013.11	안국약품과 중국내 G-CHIP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4.12	코넥스시장 상장(한국거래소)
2015.02	日 보령바이오파마사와 G DNA CHIP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5.02	美 Macrogen Clinical Lab(M.C.L)과 G DNA CHIP 기술이전 계약 체결
2015.11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한국거래소)
2017.01	보령제약그룹 업무제휴, 더맘스캐닝(NIPS) 서비스 시작
2017.12	사명 변경 ((주)엠지메드 -> (주)캔서롭)
2019.05	한국유전자검사평가원 분자세포유전학분야(NGS, CMA) A등급 획득
2020.10	Q-Sens® COVID-19 Detection Kit 식약처 인허가 획득
2020.12	Q-Sens® COVID-19 Detection Kit V2 식약처 인허가 획득
2021.12	사명 변경 ((주)캔서롭 → 디엑스앤브이엑스(주))
2022.10	한국바이오팜(주) 지분 100% 인수
2023.02	북경디아이웨이스생물과기유한공사(중국) 설립
2023.06	주식회사 에빅스젠 지분 62.66% 인수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사업 분야 및 주요 제품

동사는 신약개발, 컨슈머헬스케어 및 의료진단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신약개발 부문에서는 경구용 비만치료제(GLP-1RA),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KRNA™), 면역치료제(OVM-200)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mRNA 플랫폼과 범용 코로나백신·치료제 등은 기술도입과 기술이전 성과를 기반으로 추가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헬스케어 치료보조제품 개발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컨슈머헬스케어 부문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헬스케어 제품의 제조·유통을 수행하며 사업화를 전개하고 있다. 의료진단 부문에서는 생애 전주기 유전체 진단서비스, 체외진단 제품 및 지노믹스 연구용역 등을 제공하며 기존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그림 1] 동사 사업 포트폴리오



자료: 동사 IR BOOK(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각 사업부문은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 기능이 연계된 사업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신약개발 부문은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협력과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컨슈머헬스케어 부문은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제조·유통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품의 사업화를 확대하고 있다. 의료진단 부문은 기존 진단서비스와 체외진단 제품을 지속 운영하며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부터 생산·유통까지 연계된 통합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체계를 운영하며, 신약개발과 사업화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2] 사업부문별 주요 사업 및 제품

사업부문	사업 내용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신약개발	항암·백신·대사질환 치료제 개발	OVM-200 면역항암제, mRNA 항암백신, Microbiome 호흡기 백신, GLP-1 계열 비만치료제,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컨슈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케어 제품 개발 및 유통	Ofmom(오브맘) 시리즈, 텍스백스 생애전주기 치료보조제 시리즈, 건강기능식품, 일반의약품, 위생용품
의료진단	생애주기 유전체 진단, 유전체 연구 분석, 체외진단 및 동반진단	산전·신생아·성인 유전체 검사, NIPT, CRISPR 분석, WGS, Targeted Sequencing, PCR·면역진단키트, CliDex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제조 및 사업화 인프라

동사는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생산과 유통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전문 자회사인 한국바이오팜을 통해 GMP, HACCP, ISO22000 등 품질관리체계를 갖춘 제조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다품종 소량생산부터 대규모 생산까지 대응 가능한 생산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체외진단 부문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GMP 기반의 생산체계를 운영하며 진단제품의 개발 및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진단키트 위탁개발·생산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 오프라인 및 온라인 유통채널을 활용하여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있으며, KGSP(Korea Good Supplying Practice, 의약품유통품질관리기준) 허가를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중국 현지법인(Dx&Vx China)과 코리그룹(Coree Group)을 중심으로 해외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생산·유통 인프라는 신약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림 2] 제조 및 사업화 인프라



자료: 동사 IR BOOK(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주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현황

동사는 주요 종속기업과 관계기업을 통해 신약 연구개발,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해외사업 기능을 수행하며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빅스젠은 면역 및 염증질환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와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팜은 건강기능식품 제조를 담당하여 킨슈머헬스케어 사업의 생산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북경디아이웨이스생물과기유한공사는 중국 내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용역사업을 수행하며 해외사업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업인 Oxford Cancer Biomarkers Limited 및 Oxford Vacmedix UK Limited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과 글로벌 사업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표 3]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별 주요 역할

구분	기업명	주요 역할	소재지
종속기업	한국바이오팜(주)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생산기반 운영	대한민국
	북경디아이웨이스생물과기유한공사	건강기능식품 유통 및 중국시장 사업 운영	중국
	(주)에빅스젠	면역·염증질환 치료제 연구개발 및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대한민국
관계기업	Oxford Cancer Biomarkers Limited	환자 맞춤형 대장암 진단기술 개발	영국
	Oxford Vacmedix UK Limited	항암백신 연구개발	영국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 시장 동향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모멘텀 지속

글로벌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은 정밀의료 기술 발전과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체외진단 및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는 신약개발, 의료진단 및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며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있다.

■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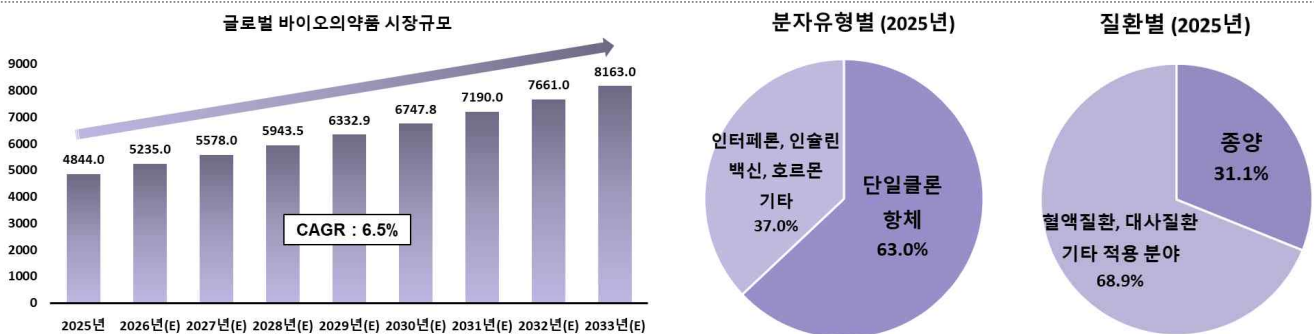
바이오의약품은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되는 의약품으로, 단일클론항체, 백신, 재조합 단백질,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을 포함한다. 암, 감염성 질환, 희귀질환 등 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신약 개발이 확대되면서 정밀의료와 차세대 치료기술을 중심으로 시장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2025년 4,844.0억 달러 규모에서 2026년 5,235.0억 달러로 확대되어 2033년에는 8,163.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부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6.5%로 예상되며,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바이오신약 개발 확대 및 정밀의료 수요 증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자 유형별로는 단일클론항체가 2025년 기준 6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질환별로는 종양 분야가 31.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와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을 중심으로 신약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면역치료제 등 주요 파이프라인의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바이오의약품 시장 성장에 따른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그림 3]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모 및 세부 시장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Biopharmaceutical Market (2026 - 2033), Grand View Research,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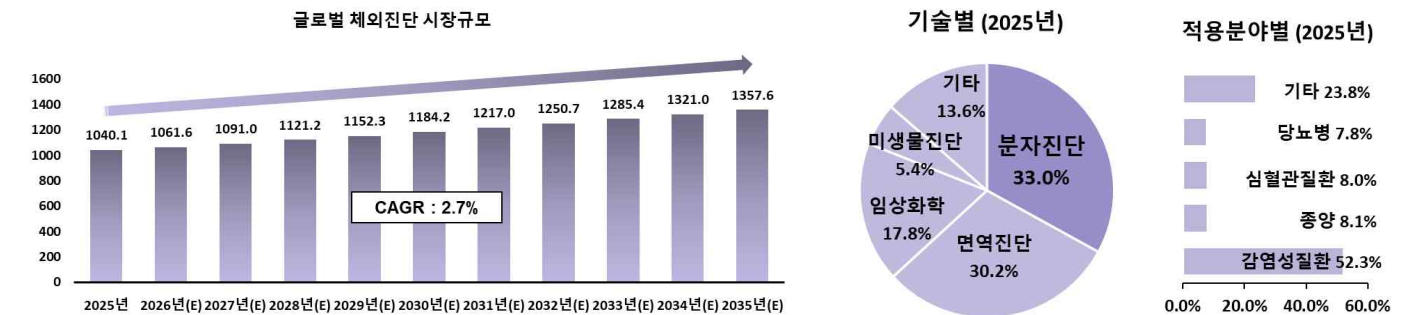
체외진단은 혈액, 조직, 소변 등 인체 유래 검체를 이용하여 질병의 진단, 예후 예측 및 치료 효과를 평가하는 의료기기 및 진단서비스를 의미한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조기진단 수요 확대 및 분자진단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Precedence Research는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이 2025년 1,040.1억 달러에서 2026년 1,061.6억 달러로 성장하여 2035년에는 1,357.6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2.7%로 예상되며, 정밀의료 확산과 유전체 기반 진단기술 발전, 신속·정확한 진단 수요 증가가 시장 확대를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별 시장을 살펴보면, 분자진단이 2025년 기준 33.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용 분야는 감염성 질환을 비롯해 종양, 심혈관질환, 자가면역질환 등 다양한 질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유전체진단, 체외진단 및 동반진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의료진단 사업을 지속 운영하면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림 4] 글로벌 체외진단 시장 규모 및 세부 시장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In Vitro Diagnostics Market (2026 - 2035), Precedence Research,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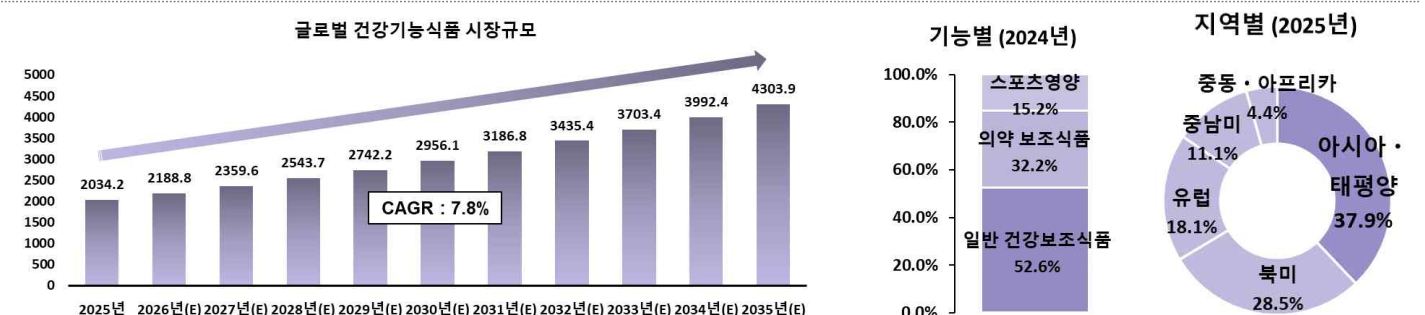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비타민, 미네랄, 식물성 원료, 단백질 등 기능성 성분을 활용하여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문화 확산과 소비자의 건강 관심도 증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Precedence Research에 따르면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개인 맞춤형 영양관리 확산과 기능성 원료 개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규모는 2025년 2,034.2억 달러에서 2026년 2,188.8억 달러로 확대된 이후 2035년에는 4,303.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7.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능별로는 일반 건강보조식품이 2024년 기준 52.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약 보조식품과 스포츠영양 분야도 건강관리 수요 확대에 따라 꾸준한 성장이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2025년 기준 37.9%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 소비 증가와 고령화, 소득 수준 향상 등에 힘입어 가장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당사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중국 건강기능식품 유통사업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헬스케어 치료보조제품 사업을 추진하며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있다.

[그림 5] 글로벌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및 세부 시장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Dietary Supplements Market Size (2026 - 2035), Precedence Research,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III. 기술분석

핵심 파이프라인 기반 신약개발 역량 강화

동사는 의료진단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중심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면역치료제를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NGS 플랫폼과 AI 기반 유전체 분석 플랫폼 등 기반기술을 확대하며 연구개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와 글로벌 기술협력을 통해 핵심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바탕으로 기술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기술

동사는 의료진단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중심의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기술협력과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경구용 비만치료제,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면역치료제를 중심으로 핵심 파이프라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NGS 플랫폼과 ACP 플랫폼 등 다양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기존 GLP-1 치료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혁신기술을 적용한 저분자(Small Molecule) 기반 경구용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GLP-1 수용체 작용제(GLP-1RA)를 기반으로 주사제 대신 경구 복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복용 편의성과 체내 침투력을 높였으며, PK(Pharmacokinetics) 개선 전략과 비가역적(Irreversible Agonist) 작용기전을 적용하여 약효 지속성과 안전성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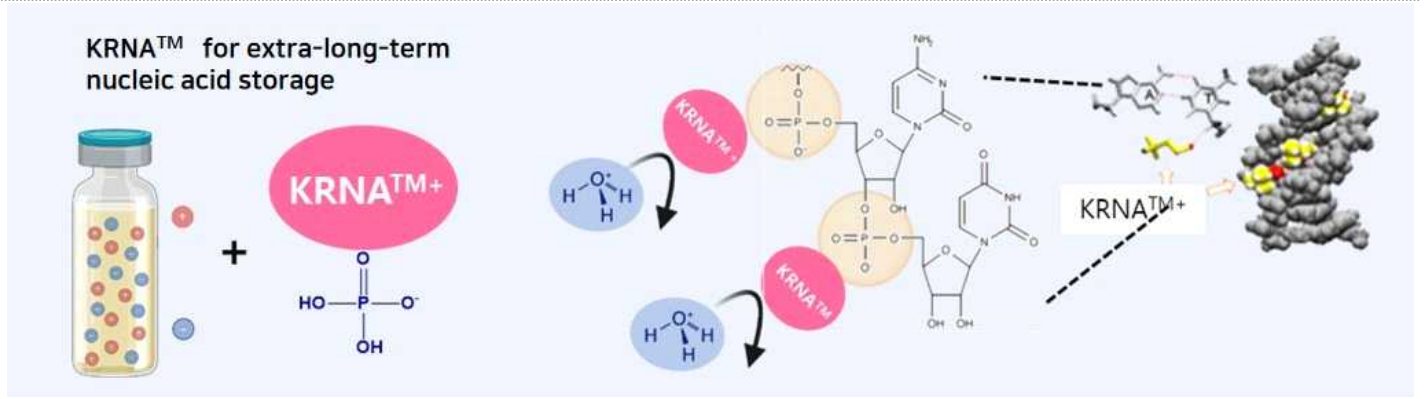
[그림 6] GLP-1RA 기술성



자료: 동사 IR BOOK(2026.06),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KRNA™)은 원자 수준의 구조보호막(Hydration Shield)을 형성하여 핵산 인산기 결합구조를 보호하고 가수분해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이를 통해 상온 노출 환경에서도 핵산의 구조적 안정성과 생물학적 활성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mRNA와 DNA 등 다양한 핵산 기반 치료제와 백신에 적용 가능한 플랫폼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한국형 ARPA-H 프로젝트와 POSTECH 공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림 7]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기술 개요



자료: 동사 제공 자료

면역치료제 OVM-200은 Oxford Vacmedix의 재조합 중첩 펩타이드(ROP, Recombinant Overlapping Peptide) 기술을 기반으로 암세포 표적항원을 활용하여 면역세포의 항암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차세대 면역치료제이다. 다양한 항원 조각을 활용하여 면역반응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폐암·난소암·유방암 등 다양한 고형암을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핵심 파이프라인 외에도 NGS 플랫폼과 ACP(Advanced Cell-Penetrating Peptide) 플랫폼을 확보하여 신약개발 기반기술을 확대하고 있다. NGS 플랫폼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술을 활용한 유전체 분석과 바이오마커 연구에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진단과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기반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ACP 플랫폼은 세포 및 조직 투과성을 향상시키는 약물전달 플랫폼으로 저분자 화합물, 단백질, 항체, RNA 등 다양한 모달리티에 적용 가능하며, 혈액뇌장벽(BBB, Blood-Brain Barrier) 투과를 통한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 개발에도 활용 가능한 플랫폼 기술이다.

■ 연구개발 역량

동사는 의료진단 분야에서 축적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신약개발과 바이오 플랫폼 기술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박사급 전문인력 30명을 포함한 49명의 연구인력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체 연구개발과 글로벌 기술협력,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병행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연구개발은 경구용 비만치료제,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면역치료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NGS 플랫폼과 AI 기반 유전체 분석 플랫폼을 활용하여 바이오마커 발굴과 신약 연구개발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글로벌 공동연구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 핵심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표 4] 동사 주요 연구개발 실적(일부)

기술분야	주요 기술	개발기간	개발현황	기술 개발 내용 및 기대효과
치료제	경구용 비만치료제	2023.11~	개발 중	신규 oral GLP-1 후보물질 합성 및 전임상 진행
플랫폼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2026.01~	개발 중	mRNA의 상온 안정화 기술과 지질나노입자 공정 개발 진행
면역치료제	OVM-200	2024.12~	개발 중	Oxford Vacmedix사의 OVM-200 도입 및 임상 1b/2상 진행
플랫폼	NGS 혁신형 바이오소재 플랫폼 개발	2026.01~	개발 중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위한 표면소재 플랫폼 기술 개발 집적화 특허 완료 및 연구개발 진행 중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지식재산권 및 기술경쟁력

동사는 신약개발과 플랫폼 기술을 중심으로 항체 치료제, 핵산, RNA 플랫폼 및 대사질환 치료 분야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있다. 초기에는 의료진단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를 확보하였으며, 최근에는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과 플랫폼 기술 분야로 권리 범위를 확대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권리화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표 5] 동사의 주요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일부)

구분	기술 분야	발명의 명칭	건수	출원 상표
특허	의료진단	유전체 이상 검사 장치 및 방법	23	KRNA <KRNA™>
	항체 치료제	TGF-β 수용체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 및 이의 이용방법		
	핵산 기술	신규한 부목 DNA 및 이의 용도		
	RNA 플랫폼	RNA 라이게이즈를 이용한 신규 원형 RNA 합성법		
	대사질환 치료	항비만 활성을 지니는 리모실락토바실러스 퍼멘텀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조성물		
상표	회사 상표	KRNA, Dx&Vx, 텍스백스, 오브미365 등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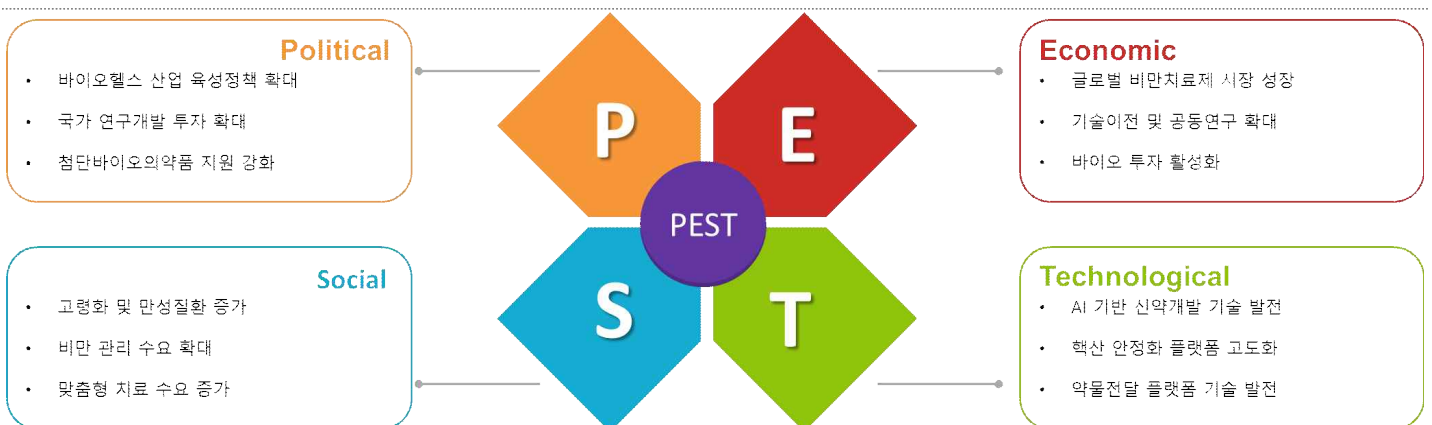
자료: 동사 분기보고서(2026.05), 동사 제공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정보 검색 서비스(KIPRIS),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사업보고서 작성일 기준 동사는 특허 23건과 등록상표 127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부 특허는 PCT 국제출원과 미국 등록특허를 통해 해외 권리를 확보하였다. 또한 2026년 3월 연구용 시약, 백신, 핵산 분석장치 및 연구개발 서비스 분야를 대상으로 KRNA™를 상표로 출원하며 플랫폼 브랜드의 권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은 연구개발 성과를 보호하고 기술사업화의 기반으로 활용되고 있다.

■ PEST 분석

동사 산업은 바이오의약품과 신약개발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으로, 정책 측면에서는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정책과 국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재생의료 지원정책이 연구개발과 사업화 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제 측면에서는 글로벌 비만치료제와 바이오의약품 시장의 성장,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확대, 바이오 투자 증가가 산업 성장의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 측면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비만 인구 확대, 맞춤형 치료와 예방 중심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시장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AI 기반 신약개발, 핵산 기반 치료제 및 플랫폼 기술의 발전과 약물전달 기술 고도화가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와 기술사업화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8] 동사 산업의 PEST 분석



IV. 재무분석

헬스케어 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자본확충으로 인한 차입 부담 완화 및 재무구조 개선

동사의 3개년 매출액은 2023년 412.4억 원, 2024년 339.5억 원, 2025년 293.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6년 1분기에는 66.6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수익성 측면에서 판관비 및 기타비용 부담으로 적자가 지속되었으나, 2026년 1분기 영업손실은 52.5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손실 폭이 줄었다. 재무구조 측면에서는 2025년 12월 유상증자 이후 자본총계가 확대되면서 부채비율도 낮아져 차입 부담이 완화되고 유동성이 높아졌다.

■ 헬스케어 중심 매출 감소에도 의료진단·신약 매출 기여 확대

동사의 매출액은 2023년 412.4억 원, 2024년 339.5억 원, 2025년 293.6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한국바이오팜 인수 이후 관련 헬스케어 및 상품매출이 반영되었으나, 2024년 이후 바이오헬스케어 품목 매출 축소와 기타 용역매출 감소가 이어지면서 전체 매출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매출액(2023년은 중단사업 제외 전 매출액)을 살펴보면, [의료진단 부문]은 2023년 70.1억 원에서 2024년 21.7억 원으로 크게 감소한 뒤, 2025년에는 30.1억 원으로 회복되었다. 2023년에는 수출 33.0억 원, 내수 37.2억 원으로 수출과 내수가 비교적 균형을 보였으나, 2024년에는 수출이 0.1억 원 수준으로 급감하고 내수 21.6억 원 중심의 구조로 전환되었다. 2025년에는 내수 매출이 29.6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회복세를 보였으나, 수출 매출은 0.5억 원에 그쳤다. [헬스케어 부문]은 동사의 최대 매출원으로, 2023년 396.9억 원, 2024년 316.9억 원, 2025년 262.6억 원을 기록하며 2025년 기준 전체 매출의 89.5%를 차지하였다. 수출 매출이 2024년 87.6억 원에서 2025년 28.6억 원으로 크게 감소하였고, 내수 매출은 2024년 229.4억 원, 2025년 234.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신약 부문]은 2023년 0.5억 원, 2024년 0.9억 원, 2025년 0.9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에빅스젠 인수 이후 신약 파이프라인 및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가능성을 축적하는 초기단계로 매출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2026년 1분기 매출액은 6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75.3억 원 대비 11.6% 감소하였다. 동사는 의료진단 부문에서 NGS, 마이크로어레이 DNA칩, 체외진단 GMP공장, 동반진단 서비스 CliDex 등을 기반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헬스케어 부문에서는 한국바이오팜과 중국 현지법인을 통해 생산·유통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매출 추이는 헬스케어 유통 회복, 진단서비스 확대, 신약 관련 기술이전 매출 발생 가능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연구개발비 등 판관비 부담으로 손실 구조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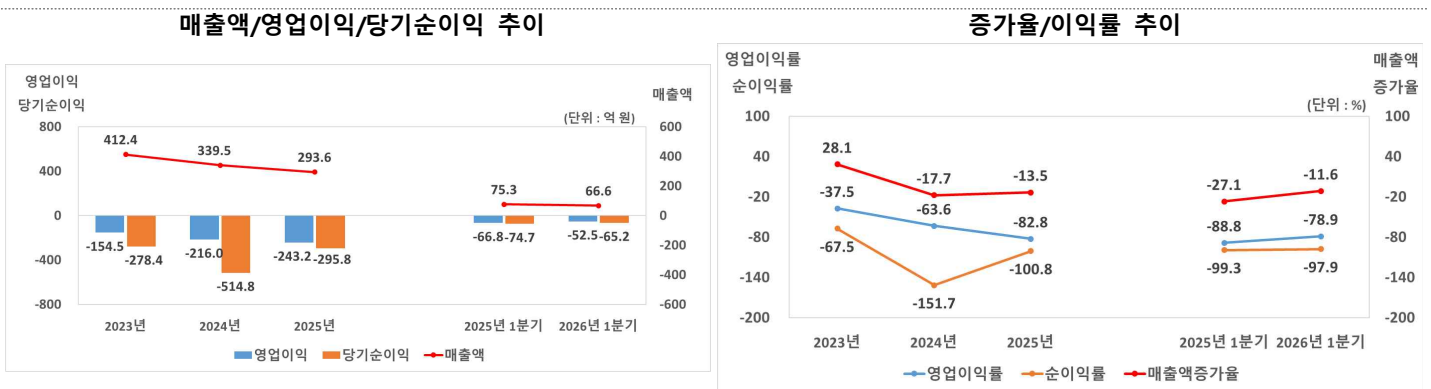
동사의 영업손실은 2023년 154.5억 원, 2024년 216.0억 원, 2025년 243.2억 원으로 확대되었다. 영업이익률은 2023년 -37.5%, 2024년 -63.6%, 2025년 -82.8%로 저하되었다.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판관비가 2023년 230.2억 원, 2024년 267.4억 원, 2025년 276.4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판관비 부담이 확대되어 수익성 약화의 핵심 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5년 매출원가율은 88.7%로 2024년 84.9%, 2023년 81.6% 대비 높아졌다. 판관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용은 2023년 33.3억 원, 2024년 102.8억 원, 2025년 86.3억 원이며, 매출액 대비 비율은 2023년 8.1%에서 2024년 30.3%, 2025년 29.4%로 변화하였다. 2023년 에빅스젠 인수 이후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와 플랫폼 개발, 백신·비만치료제·항암백신 등 연구개발 포트폴리오 확대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3년간 당기순손실은 2023년 278.4억 원, 2024년 514.8억 원, 2025년 295.8억 원으로 나타났다. 순이익률은 2023년 -67.5%, 2024년 -151.7%, 2025년 -100.8%로, 2025년에는 2024년 대비 손실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적자 구조가 지속되었다. 2024년에는 금융비용 95.5억 원과 기타영업외비용 252.6억 원 등이 손실 확대에 영향을 미쳤고, 2025년에는 영업외손익 부담이 76.7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손실 폭은 축소되었다.

2026년 1분기에는 영업손실 52.5억 원, 당기순손실 65.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폭이 완화되었다. 향후 수익성 개선에는 매출총이익률 회복, 판관비 효율화, 연구개발비의 성과 전환, 기술이전 계약의 실제 수익 인식 여부가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그림 9] 동사 연간 요약 포괄손익계산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차입 부담은 낮아졌으나 영업현금흐름의 회복 필요

동사의 자산총계는 2023년 999.4억 원, 2024년 723.6억 원, 2025년 1,548.7억 원으로 변동하였다. 2024년에는 자산 규모가 축소되었으나, 2025년에는 유동자산이 1,149.7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총자산이 확대되었다. 현금및현금성자산은 2023년 75.3억 원, 2024년 96.1억 원, 2025년 1,034.3억 원으로 증가하였는데, 2025년 유상증자 및 자금조달의 영향이 반영된 것이며 유동비율 역시 2023년 50.1%, 2024년 157.9%, 2025년 528.3%로 개선되며 단기지급능력이 크게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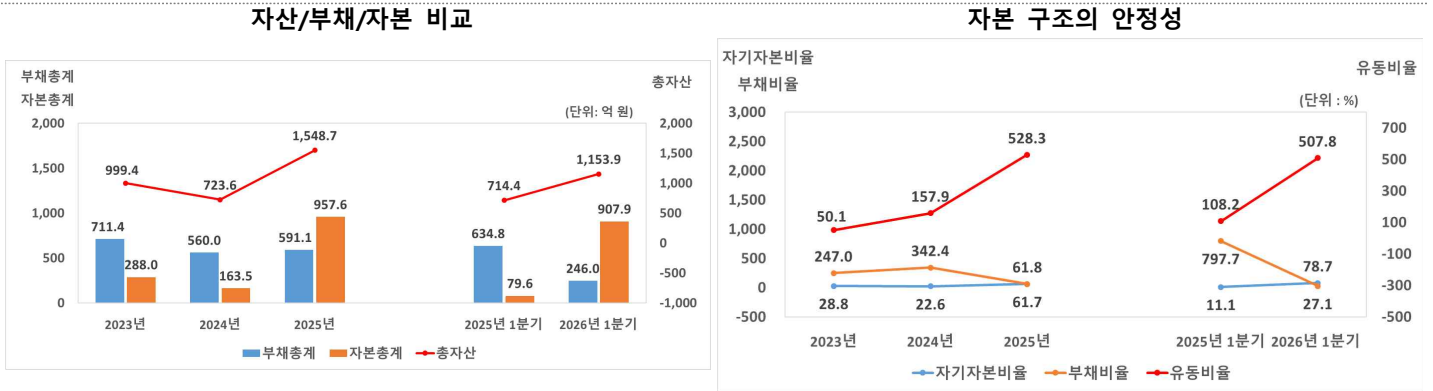
부채총계는 2023년 711.4억 원, 2024년 560.0억 원, 2025년 591.1억 원으로 나타났다. 자본 확충 폭이 커져 부채비율은 2023년 247.0%, 2024년 342.4%에서 2025년 61.7%로 개선되었다. 2025년 기준 단기차입금은 129.2억 원, 장기차입금은 327.5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자본총계는 2023년 288.0억 원, 2024년 163.5억 원, 2025년 957.6억 원으로 증가하였다. 2025년 기준 누적 손실 부담으로 결손금 상태가 지속되었으나, 2025년 12월 유상증자를 통해 996.1억 원의 자본이 유입되었고, 유형자산 재평가로 51.3억 원의 재평가차액이 발생했으며, 법인세 효과를 반영한 약 40.0억 원이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되어 자본총계가 확대되었다. 자기자본비율 역시 2023년 28.8%, 2024년 22.6%에서 2025년 61.8%로 개선되었다.

2026년 1분기 유동비율은 507.8%, 부채비율 27.1%, 자기자본비율 78.7%를 기록하였다. 동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기반이 크게 확충된 가운데 부채비율과 차입부담이 낮아졌으며, 향후 영업현금흐름의 점진적 개선이 병행될 경우 재무구조 안정화 흐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0] 동사 연간 요약 재무상태표 분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표 6] 동사 연간 요약 재무제표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항목	2023년	2024년	2025년	2025년 1분기	2026년 1분기
매출액	412.4	339.5	293.6	75.3	66.6
매출액증가율(%)	28.1	-17.7	-13.5	-27.1	-11.6
영업이익	-154.5	-216.0	-243.2	-66.8	-52.5
영업이익률(%)	-37.5	-63.6	-82.8	-88.8	-78.9
순이익	-278.4	-514.8	-295.8	-74.7	-65.2
순이익률(%)	-67.5	-151.7	-100.8	-99.3	-97.9
부채총계	711.4	560.0	591.1	634.8	246.0
자본총계	288.0	163.5	957.6	79.6	907.9
총자산	999.4	723.6	1,548.7	714.4	1,153.9
유동비율(%)	50.1	157.9	528.3	108.2	507.8
부채비율(%)	247.0	342.4	61.7	797.7	27.1
자기자본비율(%)	28.8	22.6	61.8	11.1	78.7
영업현금흐름	-120.6	-200.3	-188.5	-79.5	-100.4
투자현금흐름	-77.4	9.8	82.0	-4.1	19.1
재무현금흐름	-7.8	208.7	1,044.2	84.4	-331.6
기말현금	75.3	96.1	1,034.3	97.2	6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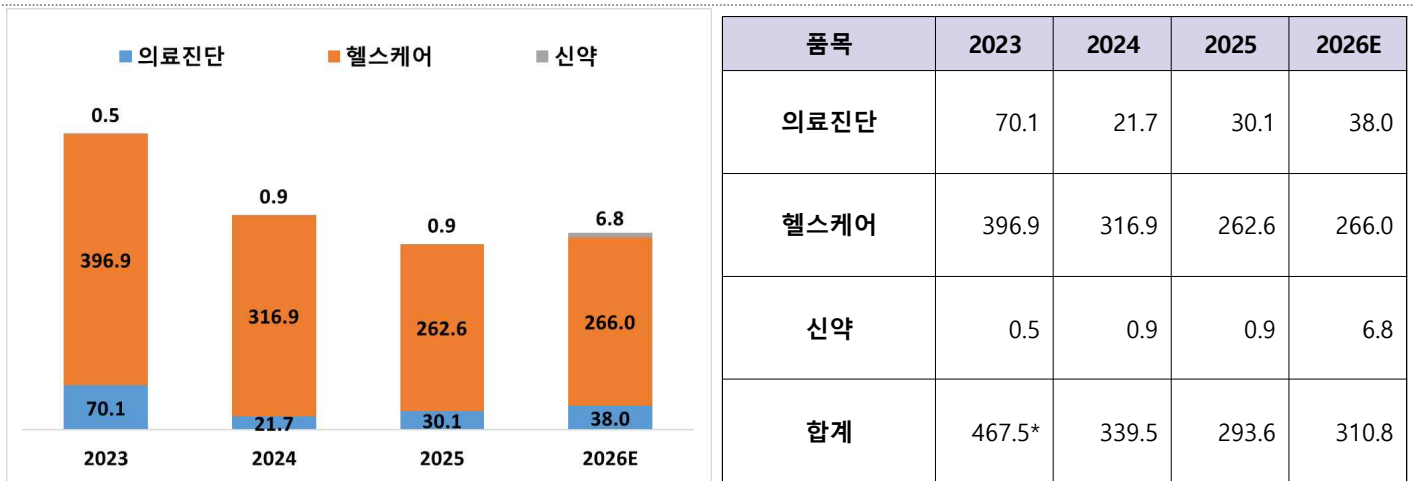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 동사 실적 전망

동사의 매출은 2023년 이후 헬스케어 부문의 감소와 의료진단 부문의 장례사업 종료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2026년에는 기존 사업기반을 중심으로 회복이 전망된다. 의료진단 부문은 유전체분석, 체외진단 및 동반진단 서비스가 지속되고 2026년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완만한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 헬스케어 부문은 한국바이오팜의 생산기반과 중국 유통망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기반으로 전년 수준에 근접한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약 부문은 기존의 소규모 매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2026년 1분기 수출 및 내수 매출이 확대되어 점진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 종합적으로 동사는 기존 사업부문을 유지하는 가운데 의료진단 부문의 회복과 신약 부문의 점진적인 성장에 힘입어 2026년 실적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1] 동사 연간 실적 전망

(단위 : 억 원, % K-IFRS 연결 기준)



자료: 동사 사업보고서(2026.03), 분기보고서(2026.05), 서울평가정보(주) 재구성

*중단사업 제외 전 매출액 기준

V. 주요 변동사항 및 향후 전망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진전과 글로벌 사업개발 확대

동사는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 진전과 글로벌 사업개발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임상 진입을 위한 비임상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면역치료제 OVM-200은 후속 임상 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은 글로벌 협력과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기반으로 사업화 기반을 확대하며 기술이전과 공동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향후 핵심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글로벌 협력이 순차적으로 성과를 거둘 경우 신약개발 중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성장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 진전

동사는 경구용 비만치료제와 면역치료제를 중심으로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경구용 비만치료제는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따른 독성시험과 제형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7년 2분기 임상시험 계획 및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후 개발 단계에 맞춘 기술이전과 공동개발 전략을 병행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면역치료제 OVM-200은 후속 임상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2026년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면역원성을 확인하며 1·2차 평가변수를 충족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후속 임상 개발과 글로벌 사업개발을 지속하며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의 상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 사업화 기반 확대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은 글로벌 협력 확대와 정부 연구개발 과제를 기반으로 사업화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25년 글로벌 제약사와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6년 유럽 RNA 플랫폼 전문기업과 추가 물질이전계약을 체결하며 플랫폼 기술의 검증과 공동연구를 확대하였다. 이어 2026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2단계 계속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플랫폼 기술의 고도화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 및 위탁개발생산 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플랫폼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향후 기술이전과 공동개발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글로벌 협력 확대

핵심 파이프라인의 개발과 함께 글로벌 공동연구와 사업개발도 확대되고 있다. 2025년 미국 바이오기업과 mRNA 항암백신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후 후속 파이프라인을 대상으로 공동연구와 기술이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 및 바이오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며 신규 공동개발과 사업기회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은 연구개발 성과를 다양한 사업 기회로 연결하고 중장기 수익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장기 성장 전망

동사는 핵심 신약 파이프라인과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을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글로벌 협력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구용 비만치료제의 임상 진입과 면역치료제의 후속 임상 개발, 범용 핵산 안정화 플랫폼의 사업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될 경우 기술이전과 공동개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신약개발 중심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과 중장기 성장기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XVX(180400)

증권사 투자의견

작성기관	투자의견	목표주가	작성일
N/A	-	-	-

시장정보(주가 및 거래량)

한국거래소(KRX)



자료: 네이버증권(2026.07.14)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7

기업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DXVX	X	X	X